

TMR 생산 현장을 가다

다져진 경험으로 재도약 기약하는 경산동부 TMR

올해의 기획취재로 TMR생산 현장을 알아보기로 했다. TMR이 갖는 의미는 단어의 뜻대로 완
전배합사료(TMR : Total Mixed Ration)란 말이다.

TMR이 갖는 의미대로만 된다면 이 TMR은 우리나라농가에게 큰 수익과 경쟁력을 줄 것이다. 그
러나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많은 보완이 요구되고 있어 안타깝다.

호사다마(好事多磨)라고 좋은 사업에는 방해되는 일이 많듯이 TMR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예상했던 TMR 사료생산도 가능해 질 것으로 믿는다.

가령 아래와 같은 경우 TMR이 불리한 경우일 것이다.

- 생산량에 따른 군별(郡別) 사양체제가 되어 있지 않다.
- 원료사료의 영양이 낮고 그의 분석이 되어있질 않다.
- 원료사료(단미사료)에 따른 정확한 사료설계가 없다.
- 원료사료의 구입이 원활하지 않다.(정부도 한몫을 거들고 있는 부분)
- 원료사료가 다양하지 않다.
- 조사료의 질이 나쁘다.

이중에는 TMR 생산에 직접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으니 많은 부분이
생산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된다.

이상적인 TMR 사양체제는 젖소의 생리에 맞는 TMR 급여로 더욱 바빠지는 축주가 되어야 하
고 그로인해 젖소는 생산량을 높여줄 것이다.

즉 TMR사양은 축주가 TMR로 인해 더 흘린 땀의 양과 관심이 우유로 되어서 나온다는 사실
이다.(편집자 주)

90년 TMR 설립, 현재 일 5톤 생산

경산동부낙우회(회장 : 전화수)는 1987년 경북낙
우회(회원 : 300여명)가 그 전신(前身)으로 이곳지
역 낙농가가 따로나와 낙우회를 만들었다. 현재 70여
낙농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TMR공장을 설립하게된 동기는 89년쫄인가 강원

도로 이주가 낙농하던 고향사람이 추석때 내려와
TMR사료에 대해 처음 소개되면서 생산비절감이란
차원에서 1990년 낙우회내에 TMR공장설립 추진위
원회를 두고 위원장에 김해희이사를 추대했다.

김위원장은 그때 당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전국
TMR공장을 물색해 충남둔포에 있는 TMR공장을



경산동부낙우회 TMR공장전경
2차선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좋다. 뒤편에 낙우회 사무실이 있다. 원내는 이 TMR을 무(無)에서 유(有)를 만든 김해희 TMR추진설립위원장.



완성된 TMR
200kg 포장단위로 공급하고 있다. 습식사료(30%이상 수분함유)여서 진공포장을 해야 하나 아직 그렇지 못해 자금만 마련되면 설치할 것이라고 한다.

수차 방문하고 우리협회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면서 점차 TMR공장 설립에 자신을 쌓아가고 있었다.

이때만 해도 낙우회원들은 TMR이 약품인지 사료인지를 모를 정도여서 야유회때는 지역(자인면, 남산면, 용성면, 진량면, 압량면) 낙농가를 데리고 둔포낙우회의 TMR공장을 견학하기도 하고 낙우회 관할지역을 3개로 나누어 TMR좌담회를 개최하여 인식을 재고시켜 나가 TMR공장 설립건을 90년 정기총회에서 상정 통과시켰다.

설립자금은 회원출자로 1인당 많게는 1천만원에서 적게는 50만원짜리 낸 66명으로 부터 총 136,550,000원을 모았다. 이 출자금으로 현재 공장부지(경북 경산군 용성면 고은리 64-7) 928평을 92,000,000원에 매입하여 전용받고 이공장 부지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 TMR 공장(공장 150평, 사무실 30평 규모)을 설립했다.

당시 평당 10만원이던 것이 현재는 평당 20만원으로 배(倍)가 올랐다. 처음 배합되어 나온 TMR사료는 전부다 기피하여(맨처음 배합한 것에는 기계설비 과정에서 남아있던 철사, 못등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염려때문에) 임원들부터 술선하여 가져가기로 했다.

현재 TMR사료는 계명대학교 실습농장에서 매번 분석실험을 하고 있다.

분석결과 영양성분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현재 TMR과 관련된 신규출자를 금지하고 있고 신규출자하기 위해서는 구좌를 구해야 한다고 김위원장은 말한다.

습식, 건식 두가지 TMR 생산

현재 경산동부낙우회의 주력사업이 된 TMR공장 운영은 경영상 수지(收支)는 적자이나 회원에게 다소나마 생산비 절감면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후자아니냐고 묻는다.

경산 동부 TMR 배합비표

사료종류	68호 건식	68호 습식	69호 건식	보조사료
옥 배 아	75	100	100	
옥 세 실	75	100	100	
맥 주 박	50	250	50	367
단 백 피	200	150	200	185
소 맥 피	108	36	50	
알 팔 파 펠 렛	60	60	60	60
면 실	3	30	75	30
루 핀 피	100	70	80	30
장 유 박	60	40	60	6
옥 피	100	34	100	160
면 실 박	60	30	70	
맥 피	28			
엿 밥		5		100
비 트 펠 프	30	30	30	
식 회 석	7	6	8	4
식 엽	2	2	2	
버 피 제	10	8	10	4
비 타 민 제	5	4	5	

※ 습식사료는 수분이 30% 함유된 사료임

습식사료는 수분함량이 30% 이상 함유되어 기호성이 좋아 바람직하나 진공포장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위생상 보건상 취급이 각별히 요구된다고 한다. 지금은 대형 고무통(용량 200kg)에 담아 공급하고 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이용하는 회원이 많이 늘어나면 TMR의 kg단가가 떨어질 것이라며 지난해 단미사료 원료 가격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TMR사료 가격은 kg당 10원 인하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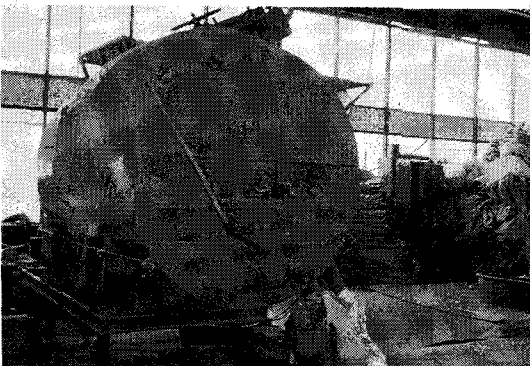
회원 전부가 TMR사료를 이용할 경우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 낙우회의 경우 습식사료의 수분조절을 맥주박으로 하고 있으나 개인이 TMR을 생산해 수분조절을 해야 할 경우 물을 이용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만 보더라도 우리의 TMR은 생산성향상과 공동체의식 함양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김해희이사는 말한다.

이 TMR을 계속 급여하고 있는 김승진씨(승진목장)는 유량 뿐만 아니라 유지방함량이 크게 눈에 띄어 3.7~3.8%이던 유지방이 4.0이상으로 올라갔으며 몇개월 TMR급여를 중단한 후 부터는 유지방이 내려가서 다시 TMR을 급여했다고 한다.

해림목장의 박대용씨는 원료사료의 원활한 공급과 배합표(Formula Program)에 의거해 배합했을 경우 젖소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나 그렇치 못할 경우 대사성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한때 배합비대로 TMR사료를 배합하지 않아 수정 불량과 케토시스(대사성 질병)가 계속 와 급여를 중지한 적이 있었다며 낙우회가 TMR을 수익차원에서



1톤 용량의 TMR배합기

“

단미사료업체의 영세성과 난립으로 단미사료의 영양학적 가치와 필요로 하는 단미사료 공급보다는 이윤이 높은 단미사료만을 공급하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단미사료업체와 배합비 작성자 사이의 공생관계도 TMR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

사업을 할 경우 배합비를 조작하여 값싼 단미사료를 많이 넣고 값비싼 단미사료는 조금 넣는 등 회원권익과는 동떨어진 행위는 회원들로 하여금 TMR을 멀리하는 근본적 사유일 것이라고 밝힌다.

지금은 일일 200kg을 급여하고 있는데 수정이 잘 돼 공태기간이 짧아지고 유지방의 함량이 눈에 띄게 늘어 “이렇게 좋은 사료를 왜 안먹었나”하는 생각들이 들 정도라며 주사료는 농후사료, 보조사료는 TMR을 급여하고 있다.

TMR 이용 확대는 당연귀결, 정부지원 있어야

TMR목적이 선도낙농가로 발돋움하려는 회원들의 생산원가 절감에 있다. 특히 조사료가 부족한 지역 여건에 맞추고 회원의 50%이상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착한 TMR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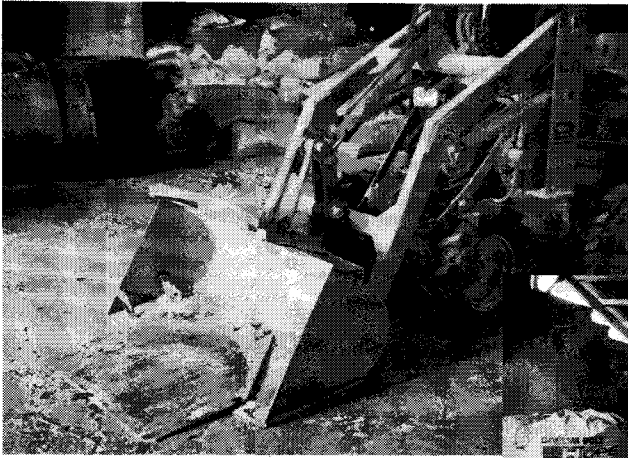
김해희 TMR추진 설립위원장은 TMR이 주는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눈에 띄게 유지방이 향상된다.

둘째, 소화기능이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온다.

셋째, 공태기간이 줄어든다.

네째, 20%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다.



200kg의 TMR포장용기를
상차시키는 지게차



상차를 기다리는
TMR사료를 뒤편에는
단미사료가 쌓여있다.

문제점으로

첫째, TMR의 원료인 단미사료의 유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둘째, 단미사료업체의 영세성과 난립으로 영양적 가치수준이나 필요로 하는 단미사료보다는 이윤이 높은 사료만 공급하다 보면 몇개월 후엔 공급과잉을 초래하고 덤핑판매를 하다보면 나중엔 이 단미사료는 수입을 업체가 기피하는 바람에 품귀현상을 보이는 점.

셋째, 단미업체와 배합비를 제공해 주는 자(者)사이의 불합리한 공생관계.(업체가 재고량을 과다하게 갖고 있는 단미사료를 배합비 작성자가 배합비에 과다하게 추가시키는 일등)

네째,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단미사료는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배합비의 효율적인 운용미흡등을 지적한다.

TMR에 대한 낙농가와 관계자들의 전망은 한결같다.

“가능성은 있다.”

“미래지향적이며 확대될 것이다”등 전반적인 의견들을 집약해 보면 전향적인 행동에 더불어 희망이 있다고 요약된다.

이런 TMR자체가 갖고 있는 희망의 뒷면에는 축주의 사양자세가 성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TMR사양의 기본인 군별사양관리의 경우 우사의 시설형태를 개수(改修)하지 않으면 기존시설로는 군별사양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고 또한 공급받고 있는 TMR의 영양학적 가치수준의 분별력·판별력이 없고 이를 누구도 검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TMR을 만드는 관계자의 정직한 자세도 사명감과 지도자의 도덕성과 직결된다. 이것은 과거부터 내려온 한국의 구조적 병폐로 어떤 면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살려 무실역행(務實力行)하려는 관계자의 의욕적인 자세에서 경산 동부 TMR의 미래를 보며 취재를 마친다.(취재 : 김대환)